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희망찬 새해 주체 110(2021)년을 맞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친필서한을 보내시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전체인민에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꽃피기를 부디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한 안부를 경건히
 축원합니다.
 나는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것입니다
 어려운 세월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제나 지지해주신
 마음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것을 다시금
 맹세하면서
 김정은
 2021. 1. 1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희망찬 새해 주체 110(2021)년을 맞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친필서한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친필서한은 다음과 같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꽃피기를 부디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한 안부를 경건히
 축원합니다.

나는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것입니다.

어려운 세월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제나 지지해주신 마음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것을 다시금 맹세하면서.

김 정 은

2021. 1.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2021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열리게 될 뜻깊은 새해 주체110(2021)년을 맞이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1월 1일 0시 당 제8차대회 대표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시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당대회 대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조선로동당과 혁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숨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김재룡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하였다.

회의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준비사업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각급 조직 대표회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결정하였으며 당 제8차대회 집행부와 주석단, 서기부구성안, 당대회 의정에 따르는 일정들을 토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해의 진군길에서 자기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2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2차 정치국회의가 주체109(2020)년 12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가하시였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김재룡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하였다.

회의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준비사업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각급 조직 대표회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결정하였으며 당 제8차대회 집행부와 주석단, 서기부구성안, 당대회 의정에 따르는 일정들을 토의

확정하였으며 당대회에 제기할 문건들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이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진행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2021년 1월 초순에 개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비상한 정치적열의에 의해 80일전투기간 각 분야에서 혁신적성과

와 전진을 이룩하여 당 제8차대회소집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당 제8차대회의 제반 준비사업이 순조롭게 결속되어가고있다고 평가하면서 대회준비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잘해나감으로써 대회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한 당 제8차대회에 상정하게 될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새해의 첫아침에 인민이 드리는 인사

새해의 첫아침 지나가나 그리운 어버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시신 사랑의 친필서한을 또다시 받아안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어있고있다.

사실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차있는 마음속진정, 심중의 가장 터치고싶은 웨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바라며 그에게 드리는 《고맙습니다》의 인사일 것이다.

고맙습니다!
조용히 외워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과 뜨거운 정이 눈물겹게 안겨와 눈곱은 찌릿이 젖어 들고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오른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2021년의 환희로운 이 아침은 저절로 밝아온것이 아

니다.
세계적으로 악성비루스에 의한 재난과 자연재해로 악몽과 불행의 해로 기록된 2020년.
결코 레사롭지 않았던 지난해를 돌이켜볼수록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천만고생 다 겪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희생적인 헌신의 로고가 가슴쓰겁게 아려온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미구에 들이닥칠 무서운 재난과 파괴적인 재앙을 한치라도 내다보지 못했던 지난해 년초에 벌써 인류가 겪게 될 고통과 불행을 내다보시고 선제적이며 강력한 비상방역대책을 세워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그러시고도 자그마한 빈틈이 있을새라 한밤중에도 이른 아침에도 따져보고 또 따져보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렇게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이며 몸소 지도해주시는 중요회의는 또 얼마나 많았던가.
어찌 이뿐이랴.
런이어 겹쳐드는 자연의 광란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을 비롯한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수많은 주민들이 한지에 나왔을 때에도 정든 보금자리를 잃고 고향을 떠나고 주민들의 정상이 눈에 밝혀오시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 복구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집과 가산을 잃고 림시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것이라 고, 지금과 같은 때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

며 인민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곁으로 더 다가 가야 한다고 그리고 절절하게 말씀하시며 멀고 험한 피해지역을 직접 밟아보시고 인민들의 마음속소망도 헤아려 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사람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이렇듯 어버이의 천만고생과 맞바꾼 인민사랑의 열두 달이 있었기에 이 땅 도처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만복의 주인공들로 되었으며 더 큰 희망과 신심속에 새해의 이 아침도 맞이할 수 있는것이다.
정말이지 너무도 고마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고맙습니다》의 소박하고 진실한 인사를 아무리 수천 수만번을 드리고 또 드린다

한들 받아안은 그 크나큰 사랑과 은혜에 어찌 다 감사를 표할수 있랴.
허나 온 나라 인민들은 《고맙습니다》라는 이 말밖에 더 다른 말을 찾지 못하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고 더욱더 가슴을 부리며 확산되어가고있는 악성전염병과 그치지 않는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비애와 절망, 두려움속에 새해를 맞이하고있다.
허나 이 땅에 사는 어느 가정에서도 불행과 슬픔의 그림자를 찾아볼수 없으며 집집의 창가마다에는 보다 아름다운 꿈과 희망의 웃음꽃이 피어나고있다.
아직은 어렵고 풍족하진 못하지만 오로지 인민밖에 모르는 경애하는 원수님

게시어 인민들의 마음은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하고 모든 가정들엔 환희로운 앞날이 약속되는 뜻깊은 새해이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들은 새해의 첫아침에 삼가 웃음을 여미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싶어하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의 첫아침 인민들에게 먼저 사랑과 믿음이 어린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으니 너무도 겸허하시고 자애로우신 인민의 어버이이시었다.
이런 위대한분을 평도자로 모시어 공화국의 새해 2021년은 투쟁과 전진의 한 해로 긍지높이 흘러갈것이며 인민들의 행복은 더욱 꽃피어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복 받은 인민이 맞은 기쁨의 새해

새해에 사람들사이에 주고 받는 인사말중에는 복과 관련한 말이 많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건강하고 가정에 복이 깃들기 바랍니다.》, 《복속에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복, 사람들 누구나 바라는 복이다.
복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 우리 겨레는 오랜 옛날부터 오래 사는것, 살림이 넉넉한것, 몸이 건강한것, 덕을 줄기등 일컬어 오복이라고 부르며 자신과 가정에 복이 깃들기를 기원해왔다.
하다면 복은 바란다고 저절로 찾아오는것인가.
인민사랑의 따뜻한 정치와 제도 가 있어 이 땅에 찾아오는 복이다.
은혜로운 어버이의 품속에서 온 나라 인민은 지난 한 해에도 꿈같이 복을 많이도 받아안았었다.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난관과 도전이 년초부터 중중첩첩 가로막아나섰던 2020년이었다.
온 지구를 해일처럼 휩쓰는 무서운 병마로 사랑하는 부모친척들을 잃은 가슴아픈 곡성이 행성의 여기저기에서 그칠새없이 울려나왔고 끊임없는 지역분쟁과 사나운 자연재해의 후과로 집과 가산을 잃고 고향을 잃은 리재민들의 기막힌 한숨소리가 지경과 대양을 넘어 퍼져갔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비애와 눈물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다.
류레없이 런이어 들이닥치는 폭우와 폭풍, 큰물피해로 나라의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허허벌판이 되었던 지역들에는 불과 몇달 사이에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인민이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강산에 차고넘치었다.
너무나 판이한 대조를 이

루며 이 땅에 펼쳐진 놀라운 현실은 그대로 공화국인민들이 받아안은 특이한 복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사람들은 지나온 한해를 가슴쓰겁게 되새겨 본다.
인민들의 생명안전이 걱정되시어, 큰물과 폭우피해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인민의 모습이 그러도 가슴아프시어 나라의 평도자께서 누구나 단잠에 든 깊은 밤에도, 별들도 조는 이른 새벽에도 사색과 사색을 거듭하시며 마고내신 날과 날들을, 신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길, 험한 돌서덜도 주저없이 걸으시고 림시교각을 세운 위험천만한 철다리도 앞장서 건느시던 헌신의 자욱 자욱들.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어 수많은 광복과 침구류, 생활용품, 의약품 등 필수물자보장대책을 세워주시어 어버이의 다심하신 손길, 그들에게 한시바베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며 하늘같은 믿음과 격려의 공개서한을 한자한자 쓰시며 수도의 당원들을 피해복구전투에 불러주시던 불멸의 화폭은 지금도 만사람의 심장속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그러시고도 10월의 열병식 경축광장에서 자신께서 바치신 헌신과 로고는 다 보여두시고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뿐이라고 하실 때,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수 없다고 하실 때 고마움의 인사를 드려야 할 인민이 오히려 어버이의 인사를 받아안았으니 강산은 솟구치는 격정의 눈물로 바다를 이루었다.
인민의 운명과 행복은 이렇게 지켜지고 마련되었다.
조선에서 펼쳐진 기적같은 현실을 두고 세상사람들

은 경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금 조선에서는 새 거리와 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인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조선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위대한 변혁과 거창한 창조는 김정은 각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자연재해는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지만 그러한 재난을 당하고도 불행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몸소 피해지역들에 나가시어 상황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모든 대책들을 다 세워주시었다. 결국 조선사람들은 비록 뜻밖의 재난을 당하였어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지역들에서는 훌륭히 일떠선 새 집들에 흠을 추며 들어서는 행복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렇다.
같은 세ათ도 어디에 뿌리내리는가에 따라 거목으로 자랄수도 있고 짝도 티워보지 못하고 묻혀버릴수도 있듯이 사람도 따듯이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어버이품에 안겨야 인생의 참된 복을 향유할수 있는것이다.
공화국인민들이 누려가는 복.
진정 그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만복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시러 멸사복무의 장정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의 세계가 안아온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어 새해 2021년에도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에 더 많은 복이 차려질것이며 넘사로소 누구나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는 온 한해동안 이 강산에 높이 울려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영범

새해를 가까이하면서 날씨는 류달리 춥고 뱀짜다.
여기 거덕지에도 동장군이 가슴을 부리고 밖에 나시면 추위가 모든것을 삼켜버릴것 같다.
그러나 내가 사는 새 집은 따뜻하다. 새해를 맞으며 온 가족이 따뜻한 아래목에 모여앉아 환희로움에 싸여 웃고 떠들고있다.
매일과 같이 텔레비전으로 악성비루스에 감염되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태풍과 큰 물의 후과로 집을 잃고 한지에 서 떨며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나의 생각은 깊어진다.
내가 만약 이 고마운 땅에 삶이 태풍으로 집을 잃고 두 자식과 함께 줄지에 한지에 나앉는 처지에 몰려떨어졌을것이라

는 생각이다.
우리 부부는 지난해 큰물과 태풍으로 집을 잃고 두 자식과 함께 줄지에 한지에 나앉았었다.
그런데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한낱한시에 덩실하고 멧있는 살림집이 무상으로 안겨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집을 잃은 우리가 추위에 떨세라 세상에 들도 없는 산악협곡도시를 마련해주자고 하시며 인민군대를 동원하여 재난의 흉터를 말끔히 가신 땅우에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훌륭한 새 집을

을 지어주시었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이 훌륭한 새 집에 입주하여 우리 부부는 두 자식을 품에 안고 감격에 울고있었다.
지금 따뜻한 집안에 앉아 텔레비전으로 불행에 빠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한다.
정말 인민들의 삶을 언제나 따듯이 보살펴주는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고 이해따라 더 따듯하고 행복한 우리의 설날이다.
김영숙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헌신의 분분 초초가 있어 이 땅우에 행복의 초침소리가 흐르다는것을 2020년의 마지막초침소리는 인민의 마음속에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시간이 흐르면 고난과 시련은 사라져버리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행복의 캐일이 다가오기 마련이다. 이것이야말로 새해의 초침소리가 안고있는, 조선의 시간이 안고있는 영원한 승리의 법칙이다.
김위강

따뜻한 설날

수필 제야의 초침소리

금지높은 2020년에서 희망찬 새해 2021년으로!
새해를 앞두고 송년의 마지막 초침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한초한초는 사람들의 귀전에 투쟁의 해, 전진의 해, 단결의 해로 아로새겨진 2020년에서 새로운 승리가 약속되어있는 희망찬 2021년으로 가는 행복의 무지개다리와의 같은 깊은 의미를 안겨주었다.
한초한초, 이 땅에 흐르는 시간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지난 2020년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이 나라 인민의 강렬한 의지와 담대한 기상을 안고 시간은 흘렀었다.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자연재해복구건설장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 기업소, 광산, 탄광, 협동전야마다에서 창조와 건설의 격동적인 분분초초가 울렸다.
그 시간과 더불어 시련과 난관을 밀어내며 창조와 건설의 열풍이 세차게 일었고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경축하는 금지높은 시각도 맞이하였다.
과연 어떻게 되어 고난과 시련의 한초한초가 위대한 승리의 한

초한초로, 행복과 번영의 한초한 초로 흐르게 되였는가.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에 의하여 이 땅우에 승리와 영광, 행복의 분분초초가 흐르게 되였고 인민은 희망찬 2021년의 새 아침을 맞이할수 있었다.
지난해에 인민들의 안녕과 복리진전을 위하여 수많은 국가적 회의들을 소집하시고 준엄한 난

국을 앞장서 헤쳐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피해복구건설장과 강원도 김화군피해복구현장, 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비롯한 자연재해복구건설장들을 찾으시어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리재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신심과 략관속에 맞이한 새해



주체110(2021)년의 첫 아침이 밝았다. 해마다 맞는 첫아침이건만 올해의 이 아침은 공화국인민들에게 류다른 감흥을 불러일으켜준다. 어떻게 밝아온 새해인가. 얼마나 간고하고 시련에 찬 언덕들을 넘고넘으며 승리와 영광의 오늘에 이르렀는가. 지난해에는 악성전염병이 세계를 휩쓸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거기에 큰물과 태풍까지 편이 더쳐들었다. 공화국에서도 큰물과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참으로 하루하루, 한결을 한결을 힘겨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이 전대미문의 도전과 위기 앞에서 다른 나라 같으면 얼백번도 주저앉았을 것이다. 하나 공화국의 인민들은 이 모든 도전과 난관을 승리

적으로 이겨냈다. 지난해 이 땅에 일떠선 수많은 창조물들이 그것을 웅변해주고있다. 순천린비료공장, 어랑천저수지, 문천군민발전소, 평양항료공장, 태천자라공장, 고산과일가공공장 등 수십개 대상이 새로 준공하였다. 또한 훌륭한 새 집들이 재해지역에 일떠서 고향없이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을 과시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대전근속에서 수많은 단위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 불리한 날씨에도 과일대풍을 안아오고 알곡증산을 위한 토대들도 든든히 갖추어졌다. 하다면 무엇이 공화국으로 하여금 난관앞에서 추호도 굴하지 않고 맞받아 나아가며 역경을 순경으로, 화

를 복으로 만들어내게 하였는가. 그것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정으로 온 나라 인민을 품어안으시고 투쟁과 위훈으로 불러일으켜주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와 그리따라 나아가갈 때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닌 공화국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선견지명과 강철의 담력, 탁월한 령도력과 숭고한 인력으로 나라와 인민을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줄기차게 향도해나가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전대미문

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할데 대한 사상을 밝혀주시고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예상치 않았던 몸쓸 병마로부터 사랑하는 인민을 지켜내기 위한 방역대책들을 하나하나 다 세우주시였으며 난관이 겹쌓인 속에서도 피해복구건설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지난해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해주시는 주요 당회의들도 그 얼마인 지 모른다.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는것이 조선로동당이 응당 해야 할 최우선과업중의 하나이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이다. 이렇듯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하시시고 그것을 위해 별사복부의 길을 위임없이 이어가시는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기에 태풍이 휩쓸고 큰물이 범람한 피해지역들을 제일먼저 찾아가시고 수도의 당원들을 피해복구건설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인민을 위해 자신을 강그리 바치시는 그이의 위대한 사랑속에 수재민들이 군당청사에서 생활하고 군당일군들은 천막에서 사업하는가 하면 재해지역으로 최정예수도당원사단과 인민군부대들이 급파되는 사랑의 전설들, 경이적인 현실들이 펼쳐질수 있었다. 수재민들을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기도 몸소 피해복구현장들을 찾고찾으

시며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집을 지어주며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게 집을 지을데 대하여와 건설물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재해지역에서 사회주의선진마을들이 일떠서고 수재민들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훌륭한 새 문화주택의 주인들로 되었다. 이렇듯 인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기도 뜻깊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광장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고마워했지만 정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이런 훌륭한 인민을 섬기고 모시고 투쟁하는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간직하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자자구구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들으며 온 나라 인민은 격정의 눈물을 끝끝내 터치고야 말았다. 진정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위대한 령도자만이 하실수 있는 심장의 도로였으며 인민을 위해 모든 심혈을 다 쏟아부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만이 터놓으실수 있는 마음속고백, 진심의 분출이었다.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정이 맥박치는 그이의 말씀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어 자신들의 앞날이 밝다는 확신을 가다듬게 되었으며 이것은 그대로 80일전투의 원동력이 되어 도처에서 전투목표를 빛나게 완수하는 결실을 안아

왔다. 참으로 지난해는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의 정이 더욱 뜨겁게 맺어진 나날이었으며 가혹한 환경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체득한 날과 달이었다. 그렇게 난관을 돌파하고 값진 열매들을 거두며 더 높은 봉우리에 올라선 공화국이다. 새해 2021년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이다. 새해를 맞이한 인민들의 얼굴마다에는 신심과 략만이 넘쳐흐르고 자신들의 투쟁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려는 열의도 드물다. 밝아온 주체110(2021)년의 이 한해에도 공화국은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속삭여주며 새해가 밝아왔다. 온 나라 가정들에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 한껏 넘쳐나고 희열과 략만에 넘쳐 밝고 환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힘차다. 《얼마나 좋은 새해의 이 아침입니까. 세상은 넓어도 인민을 제일로 위해주는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 격동과 환희속에 흘러갈 2021년의 열두달이 눈앞에 보이는것 같습니다.》 우리와 만난 중앙기관 일군인 립성철은 희열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지구상 그 어디에서나 맞이

하는 새해이건만 이 아침 울려나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서로 같지 않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한지에서 새해를 맞아야 하는가.》, 《당신은 해고되지 않았습니까?》... 떠나온 고국산천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는 피난민들, 직업을 잃고 길가에서 헤매는 사람들, 재해로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헤어날길 없는 불안의 심연속에 앞날이 보이지 않는

암운의 해로 뿔뿔이다. 하지만 이 땅에 밝아온 새해는 사람들 누구나 밝은 희망속에 맞이하는 즐거운 새해로 되고있다. 공화국인민은 승리자의 자

은 이 땅에서 모든 기적과 창조 원동력으로 되였다. 큰물과 태풍피해로 지구상에 슬픔과 절망의 통곡소리가 그칠새 없을 때 이 땅에서는 피해지역들에 황홀한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신을 이어가시였습니다.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하늘땅에 차넘쳐 우리의 새해가 그리도 따뜻하고 희망찬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심에 넘친 목소리들은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새해의 이 아침 사람들은 부푸는 꿈과 희망, 락만에 넘쳐 절어갈 한해를 그려보고있다. 더욱 눈부시게 전변될 공화국의 모습에 대하여, 기적과 혁신으로 충만될 보람찬 투쟁과 더 좋아질 래일의 생활에 대하여... 본사기자 종 범 식

희열과 략만에 넘쳐

흥성이는 축하장기념품상점

새해를 맞으며 멀리 떨어져있는 부모님들과 존경하는 스승 그리고 친척, 친구들에게 축하장을 보내는 것은 이제로운 새해맞이풍경의 하나이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사람들의 발걸음이 제일 많이 가닿는 곳은 축하장기념품상점들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새해에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는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이웃간의 화목을 도모하여왔다. 이는 화목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라고 볼수 있다. 가정들에서는 서로 사람을 보내며 덕담을 교환하기도 하

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서신으로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고유한 미풍이 오늘날 새해를 맞으며 건강과 성과를 바라는 인사말을 담은 축하장을 주고받는 모습에도 비껴있다. 동대구역에 위치한 축하장기념품상점도 축하장을 사러 오는 사람들로 흥성이고 있다. 이곳 축하장기념품상점에서는 수십여종에 달하는 각종 축하장들과 여러가지 특색있는 기념품들을 봉사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기호와 취향에 맞는 축하장들

을 고르기도 하고 어떤 형식의 축하장을 보내야 하는지 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그들중에는 고향에 계시는 그리운 부모님들과 정다운 모교의 스승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새해인사를 써내려가는 청년도 있고 은과군 대령리의 사회주의선경마을에 새집들이한 이모에게 써보낼 축하장을 사들고 기쁨의 웃음짓는 처녀도 있었다. 예로부터 문명하고 례의도덕이 밝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을 이어 이 땅에 꽃피려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풍경이다. 본사기자 립 광 훈



— 오용범 경공업성 국장과의 대담 —

기자: 지난해에 경공업부에서 조건과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오용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공업부에서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중차, 생명선으로 들어우기고 이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경공업에서는 일군들부터가 국산화를 경공업발전의 중자로, 생명선으로 보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각기 경공업공장에 내려가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기본으로 들어우기고 불을 걸도록 하였다. 지난해에 신발공업부에서는 신발공업을 활성화하고 확대생산의 경제효과성을 높였다. 신발공업관리국산화 공장에서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설물들을 재가공하여 원료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

를 거두었으며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된 신발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그리고 신발생산에 필요한 도막제들의 국산화와 생산공정을 확립한것을 비롯하여 원산구두공장, 평양가죽이김공장, 류원신발공장, 순천구두공장 등 각지의 신발생산단위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 기술개발창조의 열풍이 일어났다. 방직공업관리국산화 공장들에서도 제자원화를 줄기차게 밀고나가는 한편 방직설비들에 대한 보수와 기술개조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어 생산능력을 훨씬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또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9월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등 많은 공장들이 과학기술을 보검으로 들어우기고 제품의 질제고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 편직공업관리국산화 공장들에서는 지난해에 대중적인 기술혁신으로 제품의 질제고를 추동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선교편직공장에서 자체의 기술력으로 뜨개옷생산을 위한 새로운 자동조종장치를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애국편

직물공장, 평양양말공장 등에서 원가를 낮추면서도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당 제8차대회를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80일전투기간에 원료, 자재의 국산화, 제자원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현실성있는 계획들을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많은 단위에서 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였다. 지난해에 경공업부에서 수천여종의 새 제품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조건이 보장되기를 앉아서 기다린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기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도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계속전진, 계속혁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다. 본사기자 김 절



시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2021 년을 맞으며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웃음이 지켜지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따뜻한 설인사를 보냅니다.

통일신보편집국

주체 110(2021)년 1월 1일